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공용공간 이용실태 및
행동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Space Use Pattern and Behavior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Common Space of Nursing Home

윤 영 선* 변 헤 령**
Yoon, Young-Sun Byun, Hea-R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space use pattern and the daily living activit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the common space (living room) of nursing home. The subjects were 2 units(living room) of the nursing home. For this, researcher visited from June 20 to July 2 and collected data by observations of behavior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common space(living room) and interviews with staff for the information about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results revealed as follows: first, the daily living activit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common space tended to focus on self-concentration type and physical environment-interest type. Second,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common space affected space usage patter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it was perceived like as living oriented space, social interaction space, facility space, staff oriented space. Conclusively it was suggested to plan dining space as semi-private space, day corner as semi-public space.

키워드 : 치매노인,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용공간, 공간이용형태

Keywords : Elderly with dementia, Nursing Home, Common Space, Space Use Patter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노인과 같이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에 대한 요구를 가진 노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2003년 현재 전체 노인의 14.8%인 590,000명에서 2010년 790,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2003년 79,000명으로 노인요양시설 총족률은 31.5%에 불과한 상황에서 2008년에는 99,000명까지 노인요양시설의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인구·고령사회대책팀, 200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

설²⁾은 2005년 현재 357개소에 18,07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2개소에 2,58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정부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가족의 부양 부담 증가 등 노인의 요양보호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복합된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5년 5월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부터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노인의료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공립 치매요양병원의 단계적 확충을 위하여

1) OECD에서는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를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 정희원, 극동정보대학 인테리디자인과 부교수, 이학박사

** 정희원,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전문연구원, 이학박사

***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KRF2004-003-G00014

2002년까지 28개소에 지원하던 것을 2003년도에는 9개소를 신규 지원하며 농어촌지역에 소형 치매요양병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 치매·중증노인 보호시설을 전문요양시설은 35개소, 요양시설은 8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전략적 복지방안으로 채택하고 시설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요양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수용하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증가만을 추진할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경우 신체장애 및 질환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가정에서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 또는 간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오은진, 2000). 따라서 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행동특성에 맞도록 계획된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 삶 혹은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자원이 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주환경을 실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노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활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은 낮 시간에 거주실 보다는 직원의 관찰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준 공적공간인 거실, 식당 등에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규모가 큰 식당, 라운지보다는 소규모의 공용공간이 보다 더 가정적인 분위기를 주어 치료환경에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개발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소규모 유닛의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치매노인들의 공간 이용실태 및 직원, 타 거주자, 주변 환경 속에서 어떠한 행동특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1. 연구내용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공용공간 이용실태 및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1>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공용공간(거실A, 거실B)내 체재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내용2> 공용공간(거실A, 거실B) 내에서 치매노인의 행동특성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시설은 최근 서울 근교에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 시설을 선정하였다. 연구는 사전 조사와 본 조사로 이루어졌다. 사전 조사에서는 시설장, 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거주자의 기본 속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평면 및 가구 배치를 파악하여 관찰 도구³⁾를 만들었다. 조사방법으로는 연구자 2인이 각 공간에

대하여 비관여 행동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

표 1. 본 조사 개요

조사일시	1차	2005.6.20(월), 8:00~20:00
	2차	2005.6.30(목), 8:00~20:00
	3차	2005.7. 2(토), 8:00~20:00
조사대상	거실A, 거실B 체재 거주자(치매노인)	
조사방법	①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5분 단위로 공용공간 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 수와 행위를 직접 관찰하여 기록	
	② 오전6시부터 오전8시까지,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는 CCTV 촬영 기록 비디오를 분석하여 ①의 방법과 같이 5분단위로 기록	

치매노인의 관찰조사는 특별한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을 선정하였으며, 08:00~20:00의 12시간 동안 공용공간 내 치매노인의 행위, 대화의 대상과 상호접촉의 내용에 대해서 5분마다 기록하였다. 치매노인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하여 3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다. 1) 관찰자는 5분, 10분, 15분 등 5분 단위로 약 1분여에 걸쳐서 일어나는 가장 지배적인 행동을 기록한다. 2) 만일 관찰자들 또는 그 이상의 지배적인 행동을 관찰했을 경우 관찰된 행동 모두를 기록한다. 관찰조사의 수량분석을 위하여 5분마다 관찰된 회수의 합계를 '빈도'로, 각 항목의 빈도를 전체 관찰 회수로 나눈 값을 '비율'로 이용하였다. 수량분석에 사용된 5분 간격의 행동 관찰은 총 145개의 column이다. 치매노인의 행동은 19개의 세부항목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를 선행연구⁴⁾에서 분류된 자신집중형, 물리적 환경관심형, 소극적 타인관심형, 직원과의 상호교류형, 타거주자와의 상호교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2.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층은 <그림 1>에서와 같은 공간구성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3개의 유닛으로 나누어 케어가 전개되며, 각각의 유닛은 준 공적공간인 공용공간을 거실이나 식당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현재 입주하여 사용되고 있는 유닛A, 유닛B를 관찰조사 하였는데, 유닛A의 공동공간은 4인 거주실, 공동화장실, 외부 발코니, 직원실 출입문과 인접하여 있으며, 소파, TV, 테이블, 의자, 세면대를 설치하고 있다. 유닛B는 4인 거주실, 공동화장실, 직원실, 복도와 인접하여 있으며, 소파, TV를 설치하고 있다.

1.3. 조사대상자의 특성

거주자의 공간 이용이나 행위는 치매 정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자의 기본 특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표 3>. 거주자 모두 여성이며, 유닛A의 거주

일본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공용공간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13, n.6)에서 참조하여 거주자별 시간별 행동유형을 측정하였다.

3) 치매노인의 행동관찰지는 선행연구인 윤영선, 변혜령(2004)의

4) 전계서

자들보다 유닛B의 거주자들이 와상상태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의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설 개요

시설개요	특성
입지	경기도 고양시
시설완성(개설)	2005년 3월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무료전문요양시설
건축개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 지상3층
평수	약 500평
정원	50인
조사대상 층의 거주자*	13인(2층)
거주자실 구성	4인실 14개
조사대상 층의 면적	약 150평
조사대상 층의 공용공간면적	거실A : 약 17.67㎡ 거실B : 약 12.33㎡ (조사시 유닛 거주자수 13명, 1인당 2.31㎡)
거주자실의 면적	4인실(침대실) 26.40㎡, 4인실(온돌실) 33.60㎡
건물 특징	유닛 케어(unit care:소규모 분리 케어) 계획으로 치매노인의 행동특성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 됨.

* 조사당일 거주자수는 거실A(7인), 거실B(6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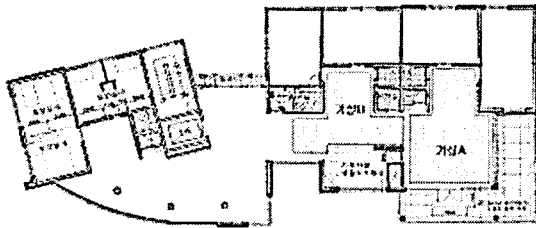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층의 평면

표 3. 조사대상자 개요

구분	유닛A	유닛B
평균 연령	83.2	79.3세
성별(인원)	여(7인)	여(6인)
MMSE*	평균8점(10번, 7점, 6점, 9점, 9점, 7점, 8점)	평균12점(13점, 11점, 12점,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측정불가 3인)
휠체어 사용 인원	2인	6인(보행가능2인)
생활지도원	4인	

III. 치매노인의 공용공간 이용 실태

1. 공용공간 이용 행동 특성

5분마다 관찰된 거주자의 공용공간 내 행위를 세부항목별로 빈도수와 비율로 정리하였다<표 6,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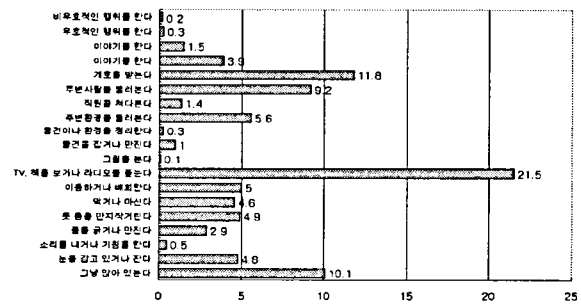


그림 2. 공용공간 내 관찰된 거주자의 행동 및 횟수

세부 행동별로 보면, TV·책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가 21.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호를 받는다 11.8%, 그냥 앉아 있다 10.1%, 주변사람을 둘러본다 9.2%, 주변환경을 둘러본다 5.6%, 이동하거나 배회한다 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노인들이 전반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TV를 보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소극적인 행동 특성과 직원의 상호 접촉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성과 활동성이 낮은 거주자의 특성상 주변사람과 주변환

표 6. 각 공용공간별 치매노인의 행동유형

관찰된 행동	거실A 빈도(%)	거실B 빈도(%)	합계 빈도(%)	관찰된 행동	거실A 빈도(%)	거실B 빈도(%)	합계 빈도(%)
1.그냥 앉아 있다	354(11.6)	110(7.0)	464(10.1)	11.물건이나 환경을 정리한다	9(0.3)	6(0.4)	15(0.3)
2.눈을 감고 있거나 잔다	139(4.6)	84(5.4)	223(4.8)	12.주변 환경을 둘러본다	66(2.2)	56(3.6)	260(5.6)
3.소리를 내거나 기침을 한다	19(0.6)	5(0.3)	24(0.5)	13.직원을 쳐다본다	25(0.8)	38(2.4)	63(1.4)
4.몸을 굽거나 만진다	23(0.8)	111(7.1)	134(2.9)	14.주변 사람을 둘러본다	296(9.7)	130(8.3)	426(9.2)
5.옷, 에이프런 등을 만지작 거린다	166(5.5)	60(3.8)	226(4.9)	15.직원으로부터 개호를 받는다	326(10.7)	218(13.9)	544(11.8)
6.먹거나 마신다	194(6.4)	18(1.1)	212(4.6)	16.직원과 이야기를 한다	104(3.4)	74(4.7)	178(3.9)
7.이동하거나 배회한다	147(4.8)	84(5.4)	231(5.0)	17.다른 노인과 이야기를 한다	46(1.5)	23(1.5)	69(1.5)
8.TV, 책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	461(15.1)	529(33.7)	990(21.5)	18.다른 노인과 우호적인 행위를 한다	7(0.2)	8(0.5)	15(0.3)
9.그림을 본다	3(0.1)	3(0.2)	6(0.1)	19.다른 노인에게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다	2(0.1)	8(0.5)	10(0.2)
10.물건을 잡거나 만진다	40(1.3)	5(0.3)	45(1.0)	총행위수	3044(100.0)	1570(100.0)	4614(100.0)

경을 둘러보는 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벽, 창, 복도 등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거주자 행동유형을 조사대상 거실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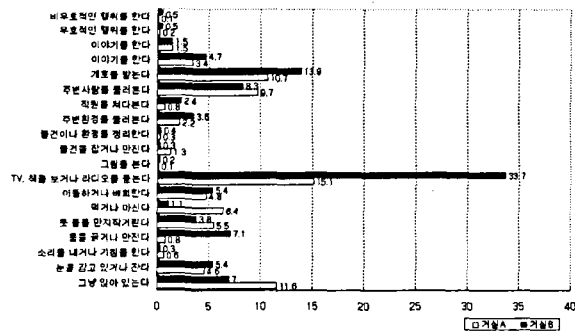


그림 3. 조사대상 거실별 거주자 행동 유형

거실A에서는 무위, 식사, 주변사람을 둘러보다, 물건을 만지다, 옥 등을 만지다 등이 거실B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거실B에서는 TV보기, 직원개호받기, 타거주자와 이야기하기, 주변환경 둘러보기 등이 많이 나타났다.

2. 중분류의 공용공간 이용 행동 특성

중분류에 의하여 공용공간에서 나타난 거주자의 행동 특성은 전체적으로 물리적 환경 관심형과 직원과의 상호 교류형, 자신집중형이 많이 나타났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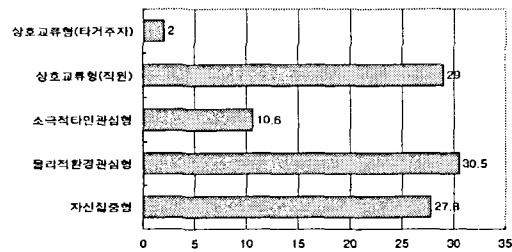


그림 4. 공용공간 내 거주자의 상호작용 행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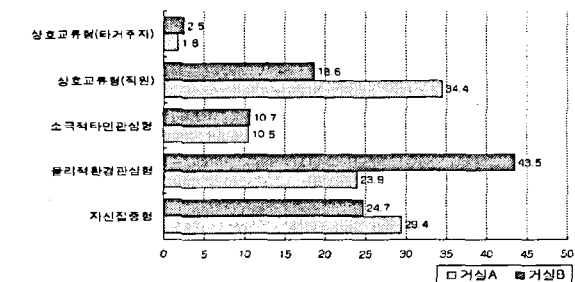


그림 5. 조사대상 거실별 거주자의 상호작용 행동 유형

이는 시설 내 치매성 노인의 전형적인 행동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 안에서 보내는

치매성 노인들에게 물리적 환경 특성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용공간 내 치매노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물리적 환경 관심형과 직원과의 상호교류형이 많이 나타났다. 벽의 그림과 장식물을 보거나 창밖을 보는 행위, TV 보기 등의 물리적 환경 관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 내에서 보내는 거주자들을 위해서 세심한 실내 환경 계획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거실별 거주자의 행동 특성을 파악한 결과,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 사용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거실A와 거실B에서 나타난 행동유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간사용상태 및 직원실과의 인접성, 거주자의 건강상태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로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공용공간 내 거주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근홍(2004),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정책 : 독일의 수발보호정책을 중심으로, 2004 노인복지학술대회집.
- 변혜령(2001), 치매노인시설을 위한 환경디자인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은진(2000), 요양원 건축의 치료적 환경 특성과 치매노인 행동의 상호관련성,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윤영선, 변혜령(2004), 일본 도시형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환경디자인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5호.
- 윤영선, 변혜령(2004), 일본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공용공간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6호.
- 봉계청(2004), 2004 고령자 통계.
- Altman, I. & Chemers, M.(1986), *Culture and enviro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 Zeisel, Joan Hyde, and Sue Levkoff(1994), Best practices : an environmental-behavior (E-B) model for alzheimer special care units,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Vol. 9, No. 2.
- Goffman, E.(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Edinburgh: University of Edinburgh.
- John Zeisel and Paul Raia(2000),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alzheimer's disease: a mind-brain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Vol.15, No.6.
- Robert C. Atchley(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Vol. 29, No. 2.